해외출장(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요약

부서 : 기획조정본부

자료제공 : 유기영

작성일 : 2019년 8월 2일

게시요망일 : 2019년 8월 12일

제목 : [해외출장노트] 네델란드와 독일의 일자리 정책 등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및 일정

• 목적>

- 네델란드와 독일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실업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례를 수집함

• 일정>

일자	활동지역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7.9(화)	서울 암스테르담	-	- 이동(서울 출발) - 도착(암스테르담)
7.10(수)	암스테르담	네델란드 사회적기업연합회	- 조직의 성격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7.11(목)	에인트호벤 로테르담	스타트 파운데이션 마르크트할	- 조직의 성격 및 기업 지원방법 - 전쟁폐허지역의 도시재생 사례
7.12(금)	바네벨트 암스테르담	파라다이스 케어팜 사회주택박물관	- 조직의 성격 및 장애인 케어방법 - 네델란드 사회주택의 역사
7.13(토)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 자동차 이동(암스테르담 → 프랑크푸르트)
7.14(일)	프랑크푸르트	Messe 박람회장	- 박람회장을 보도로 둘러보고 연계 지하철 및 트램 탑승
7.15(월)	자르브뤼켄	자를란트주 노동회의소	- 노동회의소의 성격 및 노동자 지원사업
7.16(화)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라인란드팔트.자를란트지부 연방고용공단 마인츠지방청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부의 역할 - 마인츠지방청의 조직 위치 및 주요사업 - 이동(프랑크푸르트 출발)
7.17(수)	서울		- 도착(서울)

2)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이 각자의 역할 수행

- 네델란드 사회적기업 연합회
 - 사회적기업의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상호간 연결·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정을 찾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섬.
- 네델란드 스타트 파운데이션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민간자선단체로,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 기업에 투자하여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네델란드 파라다이스 케어팜
 - 가축 사육과 농산물의 재배를 통해 치매노인과 자폐증 어린이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고, 농축산물의 판매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약자 요양 보조금을 받아 농장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기관임.
- 독일 자를란트주 노동회의소
 - 기업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일시적인 실업자, 관내에 일자리를 둔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제공,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주거·교통의 연구 등 노동자권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란트주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라인란드팔트·자를란트 지부
 - 통합서비스노조는 공공서비스, 상업, 은행·보험, 보건, 교통, 항만, 미디어, 사회복지, 인쇄, 소방 등의 종사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합원수 218만 명, 연간 운영비 4억 5천만 유로의 조합이며, 지부는 관찰구역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임금교섭방법을 교육하고, 자동화 등에 의해 실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시켜 타 직종으로 전직을 유도하고,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 직접 고용주와 단체교섭에 나서기도 함. 새롭게 부상한 노조의 관심사는 4차산업의 발달과 로봇이 초래할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임.
- 독일 연방고용공단 마인츠 지방청
 - 마인츠 지역청은 연방노동사회부 산하 연방고용공단의 156개 시군단위 지역사무소에 해당하며, 약 300명의 직원이 관할지역의 노동시장 실태조사, 직업알선 및 교육, 실업급여 지급, 장기실업자 구직장려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 확보, 기업체와 학교의 연결에 의한 필요인재의 양성, 고용관련 정보제공방법의 디지털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자료제공 및 문의처 :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선임연구위원 (2149-1157)